

ACC, 새해 다채로운 전시 ‘풍성’

예술적 감성 담은 한정판 아트상품도 출시



이건하 에코백



ACC 디퓨저



유리컵..알루미역가든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ACI)은 1월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과 신규 문화상품을 소개한다.

◇아시아 문화 다양성과 역동성 기반 전시들

‘그녀의 이름은’은 아시아 근현대사에 숨겨진 여성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전시다. 전쟁과 식민주의는 아시아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기획됐다. 방글라데시 독립전쟁박물관과 협력해 방글라데시의 역사적 파편들을 재구성했다. 3월 1일까지 복합6관.

‘많은 섬들의 나라, 누산타라’는 350여 종족이 450여 종의 언어를 사용하며 공존해 온 누산타라의 다채로운 문화를 살펴본다. 선박과 물자, 사람과 문화가 끊임없이 교차한 누산타라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전시다. 최초로 공개되는 ACC 소장품의 ‘누산타라 컬렉션’으로 구성됐다. 6월 21일까지 라이브러리파크 기획전3.

‘팝 누산타라 : 노래들 1960s~1980s Vol.2’는 13개의 ACC 문화자원 수집·연구 주제 중 하나인 ‘아시아의 소리와 음악’에 기반한 전시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말레이시아의 사회·문화·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수집한 음반, 영상, 잡지

등으로 구성됐다. 독립 이후 말레이시아 국가 형성기 민족주의 담론 속에서 대중음악이 생산한 가치와 의미를 조망해 볼 수 있다. 4월 19일까지 라이브러리파크 주제 전문관.

‘이주 서사 Migration : Speaking Nearby’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의 다층적이고 복잡한 양상과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한 전시다. 주한독일문화원과 협력해 마련한 전시엔 아시아 9개 도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9명의 큐레이터와 21팀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2월 23일까지 복합2관.

‘공작인 : 현대 조각과 공예 사이’는 조각이 보여주는 형식 너머에 정치,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전시다. 참여한 7개국 14명의 작가들은 작품에서의 공예적 요소를 지역적 특성, 글로벌리즘, 사회·정치적 이슈, 역사적식에 대한 문제제기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인간 손의 역할이 빛나는 조각과 공예의 접점에서 꽃을 피운 동시대 예술 작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다. 2월 23일까지 복합4관.

◇다문화와 인권 의미 되새기는 프로젝트 기획전

‘코끼리 날다, 광주에서’는 익산전북맹아학교와 서울한빛맹학교 학생들이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한 ‘시각장애인 창의미술 국제교류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불교 열반경에 나오는 코끼리만지기 우화에서 출발해 시각장애에 대한 편견과 ‘본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하는 전시다. 3월 1일까지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

◇예술적 감성 담은 ACC문화상품 출시
ACC는 올해 쓰임새를 우선시 하면서도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감성을 담은 ACC문화상품 11종을 신규 출시한다.

국내 문화예술기관의 향기마케팅 최초 시도에 이어 그 매력적인 향취를 담은 3종의 ‘ACC디퓨저’, ACC를 소리나는 대로 워트 있게 표현한 이건하 작가의 ‘오오쓰에코백’, 미역이라는 식재료의 속성을 재미있게 풀어낸 알루미역 작가의 ‘알루미역가든 유리컵’과 ‘핸드폰케이스’, ACC에서 경험을 그림으로 아름답게 담아낸 ‘민경희 작가의 염서와 달력’ 등이다. 신경식 금속장인과 ACC 협업으로 제작한 ‘구전 남도청 코인 목걸이&백지’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해 뜻깊게 구입할 수 있는 대표 상징 아이템이다.

모든 신규상품은 라이브러리파크 내 위치한 ACC컬처숍과 문화창조원 복합6관 앞 팝업스토어에서 구입 가능.

/이연수 기자



코끼리 만지기 프로그램.



‘많은 섬들의 나라, 누산타라’ 전에 전시된 ‘사원 행렬’.

본사 주최 김대중 정신계승 글짓기대회 수상작

당지 못할 편지



고등부 대상
최서연 영흥고 1년

햇살조차 머뭇거리던 어느 새벽, 소복이 얹은 눈길을 지그시 밝은 발들은 그 자리를 뜨지도 못한 채 쫓겨가버렸다. 맞잡은 손들의 온기를 언제 다시 느껴볼 수 있을까. 기억 없는 약속이 될 것을, 저 마음 깊은 곳은 이미 알았던 걸지도 모른다.

오랜 침묵은 잠들어있던 아침을 잠 뻔 리도 데려왔다. 떠나야 하는 사람들과, 남아야 하는 사람들. 그저 연하게만 존재했던 경계는 등을 돌려 낯선 세상과 마주

한 순간 두려움에 치를 떨도록 질어졌다. 무섭도록 삭막한 눈 앞 풍경은 어린 마음에도 깊은 생채기를 내었다.

“꼭 다시 만남세. 더도 덜도 말고 딱이 모습으로만 다시 만남세.”

휘몰아치는 눈발을 뚫고, 우리의 좁은 등가로 와 앉은 삼촌의 목소리는 내가 태어나 들어본 외침 중 가장 슬펐고 가장 찬란하게 빛났다.

어린 내 손을 단단하게 붙잡은 어머니는 험한 눈길에 한 번쯤 넘어지실 법도 하건만, 단 한 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그저 커다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앞도 잘 보이지 않는 눈발을 씩씩하게 걸어나갔을 뿐이다. 어찌 그런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으셨을까.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고향을 두고 어찌 그런 굳건함을 지킬 수 있으셨을까. 가족들을 뒤로한 어머

니의 등은 전에 없이 무거우셨을 것이다. 그만큼 뒤로한 모든 것들을 사랑했기에, 떠나오는 것이 그리 군것했으리라 지금에서야 생각한다.

휴전을한다 했다. 우리의 헤어짐을 등 떠밀며 서둘러만 칼날 위를 살가며니 걷게 하던, 그 괴물 같은 전쟁을 잠시 ‘쉬어’ 간다 했다. 그 씩씩의 자취는 대단했다. 내가 바라본 세상과 등 돌린 세상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선을 그었고, 우리를 그 경계에 영영 가두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울렁이던 기억 없는 약속의 실현이, 이렇게 잔인하게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더 처참했다. 처절하게 우리를 붙잡듯 외치던 삼촌의 한마디가 자꾸만 귀에서 어른거렸다. 12살 초여름. 남겨진 고향과 가족들은 그렇게 마음속 깊이 품어야만 했던, 찢어지는 이별의 고통을 나는 일찍이 배우고야 말았다.

분단의 아픔, 이별의 고통, 모든 것이 내가 겪은 역사 속 순간들이었다. 나는 그 후로 매일같이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늦둥이 여동생, 세상에서 가장 친한 내 친구이자 반려견 개똥이, 그리고 늘 마음 속에 품어 살던 삼촌의 외마디 외침에게 까지도.

알 수 없는 감정에 손이 쉴 새 없이 펜촉을 휘날리는 날이 있는가 하면 허공 어디에도 손을 놓이지 못해 방황하기 바빴던 날도 수없이 그 행진을 이루었다. 그 것이 쌓이고 쌓여 산을 이루어도, 주소도 이름도 없는 편지는 주인마저 잃고 먼지 쌓인 서랍 속 가장 깊은 곳에 방치되었을 뿐이다. 당지 못할 편지는 그렇게 나의 그리움을 그려나갔다.

세월이 흐르면 얼어질 줄 알았던 그리움은 매 순간을 지나칠 때마다 그 크기를 깔도 없이 키워나갔다. 남몰래 눈물을 짓

기도하고, 답답함에 소리를 지르기도 하던 수많은 시간들은 나를 어느새 노년의 끝자락에 앉혀두었다. 강한 풍량을 만나 인생에 다시없을 절망을 마주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던 즐거움을 마주하기도 한, 그런 수많은 시간을 살아왔음에도 그 때 그 고향의 마지막 모습, 차디찬 새벽바람, 거센 눈발, 어머니의 손길까지 단 하나도 기억에서 놓아본 것이 없이 없었다. 전쟁에 대한 원망이 모두 다 타고 남아 텅 비어버린 그 자리에는 무엇도 채워주지 못했다.

나는 오늘도 편지를 쓴다. 목적지 없는 편지의 행방이 그저 그리워하는 누군가에게라도 닿길 기도하며, 또 펜을 든다. 언제나처럼.

‘꼭 다시 만남시다. 더도 덜도 말고 함께 웃던 그 모습만큼만.’ <끝>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신문을 살려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국 현황

■ 동구		
중앙	223-2378	010-3635-1195
충장	233-4123	010-7755-8824
학운	225-0651	010-4757-2442
■ 서구		
광천	374-2126	010-9602-2565
쌍촌	372-6659	010-6636-2775
화정	381-2156	010-4235-0902
상무	372-7625	010-5013-3889
풍암	681-3179	010-6634-5084
■ 남구		
봉선	673-6836	010-4757-2442
진월	653-6900	010-5662-7449
월산		010-8245-1625
남부	651-1833	010-2943-8016
송하		010-8620-1925

■ 북구		
운암	525-3761	010-6886-3761
양산	574-3745	010-2646-3205
오치	261-9461	010-3629-0146
문흥	261-9462	010-7601-4480
일곡	573-3200	010-9273-0105
두암	264-7074	010-2684-6091
중흥	433-1503	010-4601-2080
북부	222-2524	010-2656-4543
■ 광산구		
첨단	971-7374	010-3613-2312
신가	952-4864	010-3648-2549
월곡	952-1687	010-3612-1687
우산	951-9954	010-5018-0024
수완	955-0451	010-3607-4560
송정	941-7070	010-3976-0123
혁신		010-4623-9622

■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광산지사	010-3601-1102
목포(갑)	010-3272-2765
목포(을)	010-3635-6777
목포(병)	010-9359-1648
여수지사	010-8648-1236
순천지사	010-2547-7890
나주(갑)	010-6445-9370
나주(을)	010-3713-7458
광양지사	010-2630-1628

담양지사	010-4154-8277
곡성지사	010-6764-6100
구례지사	010-5431-4006
고흥지사	010-9151-2828
보성지사	010-5259-6441
화순지사	010-3666-5888
장흥지사	010-3613-6114
강진지사	010-6646-1241
해남지사	010-8181-2627

영암지사	010-4624-8409
무안지사	010-3621-8989
함평지사	010-3773-2522
영광지사	010-8666-2882
장성지사	010-3666-1300
완도지사	010-5619-7020
진도지사	010-3624-4777
신안지사	010-4627-1472

M 전남매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대표전화 062) 720-1000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62) 720-1098
팩스 : 월간국·관리국·사업국·판매국·광고국 062) 720-1020 / 편집국·기사제보 062-720-1080-82

이메일 편집국 : jndn@chol.com 관리국 : jsm7139@nate.com 월간국 : jnreviews@hanmail.net
광고국 : jnmi1000@hanmail.net 마라톤대회 : 0518run@hanmail.net 글짓기대회 : peace20090818@hanmail.net